

금호터미널 '분리매각' 할 듯

대한통운 매각 숨통… 지역사회·경제계 “환영”

롯데 입찰포기 예상… 포스코·CJ 대결 가능성

난항을 겪던 대한통운 매각 작업이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분리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역 사회와 경제계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10일 금융권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통운 매각 당사자인 아시아나 항공과 대우건설은 대한통운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호터미널을 폐기·폐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상자였던 금호터미널과 입주업체인 광주 신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분리 매각을 촉구했던 광주시의회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주당 광주시장 등 광주지역

정치·경제·사회계도 환영했다.

금호터미널의 분리매각 결정은 일괄매각을 주장하던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금호아시아나의 입장을 수긍하면서 극적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대주주이자 아시아나항공의 주체권은행으로서 역학구도상 금호아시아나보다 우위에 있지만, 대한통운 지분 구조상으로는 금호아시아나가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금호터미널의 일괄매각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표 대결에서도 금호아시아나를 이길 가능성이 헤박하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같은 자회사인 아스공항과 아시아나공항개발의 경우 분리매각하면서 금호터미널만 반대하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광주·전남의 관문이자 향토기업의 상장성이 강한 금호터미널 매각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대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분리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금호터미널은 대한통운의 보유 지분 전부를 장부가인 2190억원에 금호아시아나에 넘겨 재매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통운 인수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하게 일괄매각을 요구했던 롯데그룹이 입찰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이다. 롯데는 금호터미널

널의 분리매각 움직임이 보이자 실사작업을 중단하고 예정돼 있던 경영진 면담까지 거부하는 강수를 뒀었다.

반면 포스코와 CJ는 양자대결을 통해 인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입찰을 포기할 경우 대한통운의 매각자가 주당 2만~5만원 떨어진 13만~16만원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 금액상으로는 3000억~5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입찰 당시 롯데는 금호터미널 인수 가치를 6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포스코와 CJ는 장부상 가치인 219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광주버스터미널은 여객운송시설이라는 틀을 넘어 문화와 쇼핑 등 지역 정서가 깊이 담긴 공간”이라며 “운송사업과 연계된 기업이 운영해야 수익성을 극대화해 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에서는 롯데가 입찰을 포기할 경우 대한통운의 매각자가 주당 2만~5만원 떨어진 13만~16만원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 금액상으로는 3000억~5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입찰 당시 롯데는 금호터미널 인수 가치를 6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포스코와 CJ는 장부상 가치인 219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광주버스터미널은 여객운송시설이라는 틀을 넘어 문화와 쇼핑 등 지역 정서가 깊이 담긴 공간”이라며 “운송사업과 연계된 기업이 운영해야 수익성을 극대화해 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이어온 작동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스포츠유트리티차량(SUV)을 무상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일부 차종에



기아차, K5 하이브리드 친환경 나무 링거 캠페인

기아자동차는 잠실야구장, 양재천, 코엑스 주변과 수도권 기아차 판매점에서 나무 링거 캠페인을 이용해 K5 하이브리드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알리는 ‘K5 하이브리드 나무 링거 캠페인’을 이달 22일까지 실시한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배출가스 초과 SUV 무상수리

현대·기아차가 이어온 작동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스포츠유트리티차량(SUV)을 무상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일부 차종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6~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가 이날 제출한 시정안에는 문제가 된 SUV차량을 회수해 무상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종은 2006년 이후 출고된 투싼과 스포티지, 싼타페, 쏘렌토, 베라크루즈 등이다.

/연합뉴스

금값 또 오른다

올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전망

금값이 올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불룸버그통신이 헤지펀드 전문가의 밸언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또 오는 2015년에는 필름페인 편광 안경(FPR) 방식 3D TV 수요가 서터 앵글 방식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시장조사 분석기관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올해 3D TV 수출은 지난해보다 463%나 증가한 23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아이서플라이의 “마케팅과 프로모션 전략의 변화, 가격 하락과 콘텐츠 강화 등으로 전세계적인 3D TV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증가율이 5.5%에 불과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서플라이에는 또 내년 3D TV 수출도 올해보다 132% 증가한 5420만대에 달해, 지속적인 세자리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적인 3D TV 수요는 2014년에는 1억대를 넘어서고, 2015년에는 1억5920만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 11년간 금값은 연평균 17% 씩 올랐으며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본다. 올해 충분히 20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프로트 대표는 미국 달러화 대신 금을 보유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금값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금값은 10년 연속 올랐으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금값은 1,421.40달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EU FTA 기업 ‘원산지 인증’ 비상

7월 1일 발효… 대상 4333곳 중 19.8% 불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 1일 발효돼 이제 두달도 남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수출 준비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로 인한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대다수 EU 수출 기업이 이를 갖추지 못했다.

대상은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자정해야 한다.

현재 인증 대상인 4333곳의 기업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겨우 859곳, 19.8%에 지나지 않는다.

EU 측 세관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겸하는 강도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 관세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필요한 수출기업에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컨설팅팀을 해당 기업에 파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종소세·근로장려금 합동창구 운영

신고·신청 동시에 받아

광주지방국세청이 신청자의 신청권의를 위해 광주지역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화정동 세미래 교육센터(구 서광주세무서) 1층에 합동신고창구를 개설해 1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만큼 마감일이 가까울수록 합동신고(신청)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신고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동신고창구 운영이 개시되는 11일부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일찍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시·군 지역별 원거리 신고자를 위해 현지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기간과 접수장소 등을 세무서 방문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기제품 구매 실적점검기관 확대

중기청 법령개정 나서

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독려하고자 실적점검기관을 확대하는 등 법령 개정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중소기업 구매 점검 대상 기관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업체제품의 구매 계획과 실적을 중기청장에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현행 282개 기관에서 499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전 까지 일부 공공기관과 광역자체 산하 지방공기업만이 점검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원룸부지, 생활주택 적합 백운동 로티리에서 무진중학교 가는 길 2층 주거지 256평 감정 5억선 매도 3억9천
- 교회건물, 구시청(이미트) 옆 대지 71 건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 포함 운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대인동 소방로로코너 5층상가건물 대지 67 건평 210 평지 28천 디파트 사용 4억6천만원
- 유동 모텔 대지 133 건평 306 오피스시설적합 6억천
- 유촌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 21억
- 고교부지 내봉동 484평 대출 7억 매도 8억9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 496 건평 872 공시지가 53억2천
-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학순 이동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 29평 건평 1억2천 매도 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 108 건평 303평 창고 1억2천 매도 11억5천
- 금남로4가 구 광주은행 4거리 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동 있음 공시지가 87억5천 매도 35억
- 광주은행 원룸 대지 108 건평 303평 감정 11억8천 매도 6억7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3천
- 주유소 환승을 끝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 15억5천
- 동립동 이파트 예정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5평 19억천
- 롯데백화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가 5억 매도 4억5천
- 대도·교환
- 학순군 동면 성리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음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9천8백
- 산수동 호남면선 2층주거지 220평 시찰·설립 2억7천
- 하남공단 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적합 3억9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 | | |
|------|--|
| 근린시설 |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감정가 2억 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 73평 건평 131평
농가시설 감정가 3억5천만 최저가 2억 4천만 |
| 농가시설 | · 나주시 금천면 과수원 토지 1,530평
감정가 1억8천 최저가 1억3천만 |
| 단독주택 | ·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감정가 1억4천만 최저가 9천9백만 |
| 전원주택 | · 화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6천5백만 |
| 근린주택 |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 31평
건평 62평 감정가 1억3천만 최저가 8천9백만
· 서구 회정동 3층 대지 63평 건평 105평
감정가 3억 |